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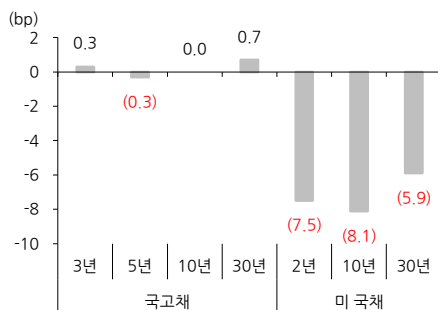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Narrow Gap, Narrow Path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1/31)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2.57%	2.48~2.60%	하락
국고 5년	2.70%	2.65~2.73%	강보합
국고 10년	2.86%	2.83~2.90%	강보합
국고 10-3년	28.6bp	25.0~32.0bp	확대
미국 10년	4.54%	4.45~4.60%	약보합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립금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는 중

FOMC와 그 이후 연준의 동향을 보면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존재. 내부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 내부 이견은 중립금리와 정책 조정 속도에 대한 견해를 의미. '상승 vs. 유지'에서 '상당히 상승 vs. 약간 상승'으로 바뀐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이제는 '어느정도 상승'으로 모아지고 있음

최근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Powell 의장을 포함한 대다수 인사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어느정도(somewhat) 상회한다고 했고, Goolsbee 총재 등 일부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은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상당히(meaningfully)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추정

중립금리 상승 여부에 신중했던 Powell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상당히(meaningfully) 위에 있다고 언급. 다음 날 Goolsbee 총재는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어느정도(a fair bit low) 밑에 있다는 의견 제시. 보수적이었던 이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전향적이었던 이들은 신중해진 모습. 중립금리는 기준금리의 최종 목적지. 이 목적지를 두고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

어려운 길에 들어선 연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시장

좁혀지는 이견은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를 뜻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는 신중한 정책 조정을 뜻함. 기준금리가 결코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임이 이번 회의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 상황. 다만,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 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1990년대 중반이 사실상 유일. 연준은 성공하기 어려운 길에 들어섰고, 그렇기에 시장은 의구심을 자우지 못할 것. 시장금리도, 기준금리도 쉽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시장 동향

글로벌 국채 금리
대체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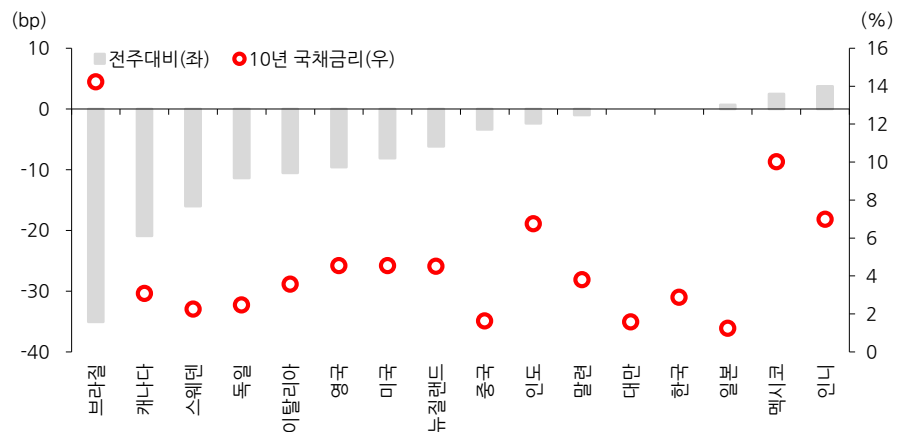
지난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부분 하락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이슈가 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캐나다와 유로존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 결정은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던 재료였다. 오히려 특별한 내용이 부재했던 FOMC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브라질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긴축정책의 유지는 성장을 원하는 정부 친화적인 신임 총재 취임 관련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채권시장은 크게 강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
만기별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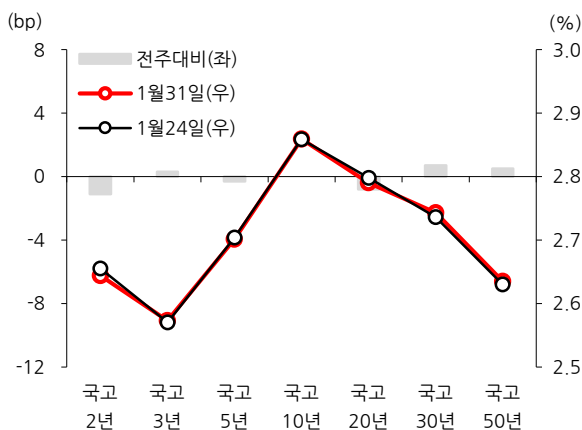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 혼조세를 보였다. 주중 설 연휴 관계로 거래일이 많지 않아 등락 폭은 크지 않았다. 국고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0.3bp 상승한 2.57%, 10년 금리는 전주와 동일한 2.86%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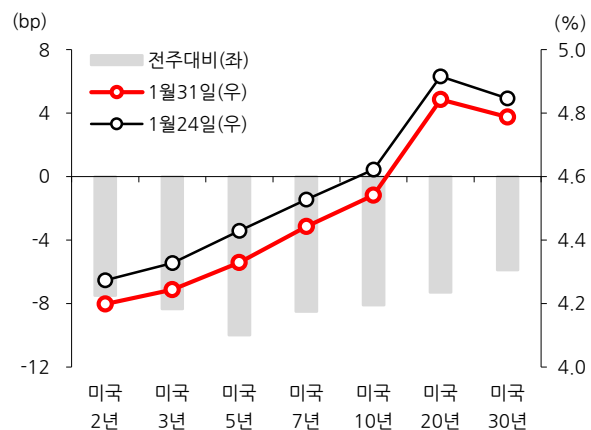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시장 전망

1. 이슈: 좁혀지는 이견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는 중

FOMC와 그 이후 연준의 동향을 보면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다. 내부 이견이 좁혀지는 모습이다. 내부 이견은 중립금리와 정책 조정 속도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 '상승 vs. 유지'에서 '상당히 상승 vs. 약간 상승'으로 바뀐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이제는 '어느정도 상승'으로 모아지고 있다.

'상당히 상승 vs.
약간 상승' 구도에서

최근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였다. Powell 의장을 포함한 대다수 인사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어느정도(somewhat) 상회한다고 했고, Goolsbee 총재 같은 일부 온건한 성향의 사람들은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상당히(meaningfully)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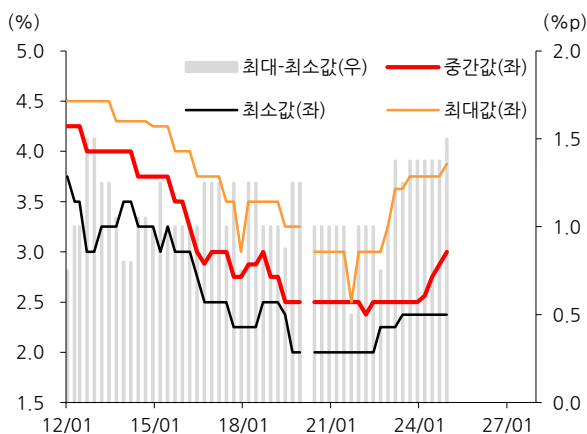
'어느정도 상승'으로 절충

중립금리 상승 여부에 신중했던 Powell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상당히(meaningfully) 위에 있다고 했다. 다음 날 Goolsbee 총재는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어느정도(a fair bit low) 밑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수적이었던 이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전향적이었던 이들은 신중해졌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의 최종 목적지다. 이 목적지를 두고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는 중이다.

어려운 길에 들어선 연준,
그 만큼 시장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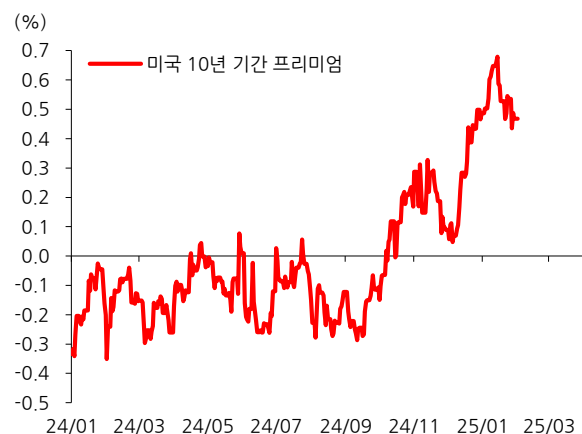
좁혀지는 이견은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를 뜻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는 신중한 정책 조정을 뜻한다. 기준금리가 결코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임이 이번 회의를 통해 명확해졌다. 다만,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 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1990년대 중반 밖에 없다. 연준은 성공하기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 그렇기에 시장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시장금리도, 기준금리도 쉽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4] 좁혀질 중립금리 추정치



주: SEP Longer Run 금리 전망치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간 프리미엄(불확실성)의 예전 수준 복귀는 어려울 것



자료: New York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전략: 국내는 하락, 해외는 하단 강화

국고 3년: 2.48~2.60%
국고 10년: 2.83~2.90%

이번 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48~2.60%, 2.83~2.90%을 제시한다. 금통위 의사록(인하 Narrative 강화), 소비자물가(특이사항 부재) 등 국내 이벤트들은 대부분 단기 금리 하락 재료다. 반면, 해외 이슈(연준 구성원 연설, 1월 고용지표 등)는 금리 하방 경직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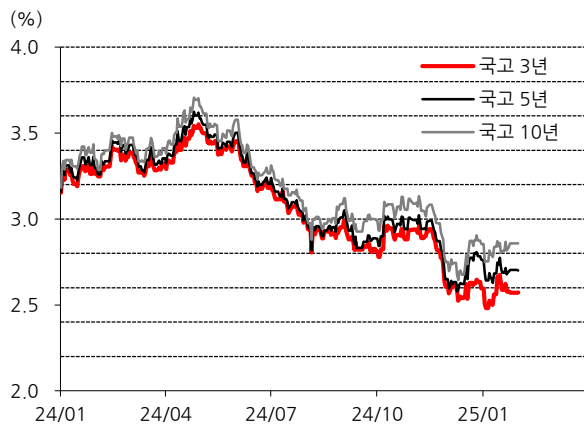
금통위 회의록,
인하 Narrative 강화 재료

4일 공개 예정인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환율만 아니었다면 1월에 내렸다’라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금통위에서 확인한 부분이다. 다음 날 발표되는 1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환율 급등에도 수요가 약해 큰 변화가 없었던 12월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은 2.0%를 소폭 상회할 수 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2% 아래에 있을 공산이 크다. 수치의 반등보다 약한 수요가 포인트다.

이건 차 좁혀가는 연준,
하방 경직성 강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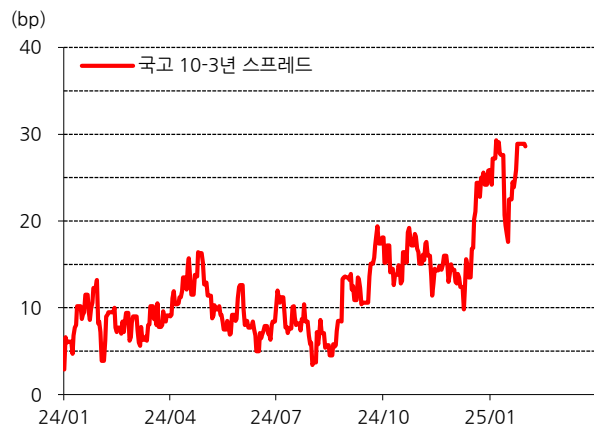
미국은 4일 Bostic 총재를 시작으로 8일 Kugler 이사까지 총 10명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금번 FOMC를 전후로 연준 내부의 이견이 좁혀졌다. 중립금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었던 일부는 신중해졌고, 신중했던 대다수는 소폭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연준의 내부이견 정리는 신중한 정책 기조 강화를 의미한다.

[그림6]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고 10-3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1/31)		
국고 3년	2.60%(-2.3bp)	2.57%(0.0bp)	2.57%(+0.3bp)	2.48~2.60%	하락
국고 5년	2.76%(-6.1bp)	2.70%(0.0bp)	2.70%(-0.3bp)	2.65~2.73%	강보합
국고 10년	2.86%(+0.4bp)	2.86%(0.0bp)	2.86%(+0.0bp)	2.83~2.90%	강보합
국고 10-3년	25.9bp(+2.7bp)	28.6bp(0.0bp)	28.6bp(-0.3bp)	25.0~32.0bp	확대
미국 10년	4.59%(-4.3bp)	4.54%(0.0bp)	4.54%(-8.1bp)	4.45~4.60%	약보합

- 국내 통화정책 완화 Narrative 강화 예상. 대외 이슈들은 금리 하단을 지지하는 재료. 커브는 Steepening 양상 보일 것
- 한미 10년 괴리가 크게 벌어졌지만 양국의 펀더멘털을 생각해볼 필요. 미국만큼 한국은 장기금리 하단이 단단하지 않음. 2.90% 부근은 여전히 매력적인 레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30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상당한 진전(significant)을 보였음. 2024년 GDP 성장률은 2%를 웃돌 것. 물가도 목표 수준에 매우 근접(much closer to goal)했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somewhat elevated) 곳에 위치 - 설비투자는 둔화, 주택시장은 안정되는 모습 -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 전반적으로 고용은 균형잡혀 있음(broadly balanced). 고용시장은 물가 자극 요인이 아님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큰 변화는 부재(well anchored) - 12월 PCE, Core PCE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 2.8% 상승했을 것 (11월 PCE: 2.4%, Core PCE: 2.5%) - 양대 책무 달성 관련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roughly in balance) - 연준은 서둘러서 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없음(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policy stance). 앞서 나가지 않을 것(not on preset course) - 목표 달성 속도에 맞춰서 통화정책 조정할 것. 현재 통화정책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며,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음(very well calibrated) -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 리뷰는 늦어짐 즈음 발표할 예정 -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는 기준금리 인하 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완화(meaningfully less restrictive) - 물가의 추가 진전, 고용의 추가 약화를 확인한 뒤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할 것 - 물가 목표 달성에 추가 고용 약화는 불필요 - 성명서 내 물가 관련 문구 단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does not act until seeing much more than we see now) - 주거물가는 꾸준히 둔화될 전망(coming down pretty steadily) - 이민자 유입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만큼 신규 고용 창출도 감소. 낮은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 - 연준 구성원 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 -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상당수준(meaningfully) 상회 - 관세정책이 미칠 여파와 그 여파의 방향성은 매우 불확실(range of possibilities of tariff is very, very wide) - 준비금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지금도 매우 풍부한(abundant) 수준 - 자산 축소 정책은 지속될 것 -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 정책 또는 물가 관련 기대 때문이 아님 - 현재 고용 증가율은 둔화. 따라서 기업들의 해고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
1/30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 경제는 약한 모멘텀 이어질 전망. 제조업경기는 위축, 소비자심리는 취약한 상태 지속 - 실질임금 상승도 소비자심리 개선을 이끌지 못하고 있음 - 다만, 고용시장은 강력(remains robust).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은 결국 수요를 개선시킬 것 - 추가 관세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수출도 경기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물가 상승세는 예상했던 일이나 서비스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현재 레벨에서 등락하는 모습 보일 것 - 대부분 지표들은 물가의 2% 복귀를 지지 -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우세. 통상분쟁은 유로존 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 미약한 경기 회복세는 물가의 하방 압력 - 금번 회의에서 최종 기준금리(terminal rate)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기준금리 인하 중단 논의도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 - 금번 인하 결정이 적극적인 조치는 아님. ECB는 50bp 인하시키지 않았음 - 2025년 중 물가 목표 달성 기대(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will hit target in 2025) - 임금 관련 모든 지표들은 둔화를 지지. 물가, 특히 서비스 부문에도 긍정적 -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 중. 회복세 지연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 - 금리 상승세는 미국 환경에 기인. 금리 상승이 통화정책 완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음 - 기준금리의 중립금리 하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답 불가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31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 압력 상승(cost-push factor)에 기인. 추세 상승률은 여전히 2%를 하회 중 - 환율 타게팅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아님.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경제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가 전망에 부합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할 것 - 시장은 통화정책 조정을 반영
1/31	Michelle Bowman (연준 이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이 아니지만 임금상승률은 2% 물가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수준(wage growth is still inconsistent with 2% inflation target) - 장기 국제금리 수준을 면밀히 주시 중.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연준의 메시지를 시장이 반영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 - 1분기 데이터를 통해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 가능해볼 수 있을 것 - 공급망의 취약성, 지정학적 긴장, 대선 이후 수요 증가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 - 기준금리는 연내 추가로 인하되겠지만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운영할 것
2/1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PCE 수치는 예상보다 매우 긍정적 - 본인은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 중이라는 확신이 있음. 기대인플레이션도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firmly anchored) - 정책 불확실성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should slow down as we take rates toward neutral) - 물가가 2%로 복귀한다는 추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있음. 기저효과가 2025년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낮출 전망 - 기준금리는 앞으로 12~18개월동안 인하될 것 - 고용은 완전 고용 부근에서 안정된 모습(looks settled in around full employment) - 단발성 관세 인상 충격은 일시적. 통화정책 대응에 신중할 필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도 연준으로 하여금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고 있음 - 경제 모멘텀은 매우 훌륭함(excellent path) - 본인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동의(I have no problem slowing pace of cutting) - 중립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보다 조금 아래에(a fair bit low) 위치 - 자동차 관련 관세는 우려스러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	4	5	6	7
<p>중국, 홍콩 휴장(-2/4)</p> <p>(한국) 국고 2년 입찰(2 조원) 12월 공공업생산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1.2%) (전월비: -0.7%, 전년비: 0.1%) 12월 소매판매 (전월비: 2.2%, 전년비: -1.9%) 1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 100.8, 전년: 100.2)</p> <p>(유로존) 1월 제조업 PMI (예상: 46.1, 전월: 45.1, 전년: 46.6)</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1월)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매파, X) 연설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매파, O) 연설</p> <p>(한국) 국고 30년 입찰(5조 8,000억 원)</p> <p>(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 49.9, 전월: 49.3, 전년: 49.1)</p>	<p>재무부 1분기 국제발행 계획(QRA)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매파, X) 연설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Jefferson 연준 부의장(중립, O)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p> <p>(한국) 1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비: 0.5%, 전년비: 2.1%) (CPI 전월비: 0.4%, 전년비: 1.9%) (Core 예상): 1.8%, 전월비: 0.1%, 전년비: 1.8%)</p> <p>(미국) 12월 공장수주 (예상(m): -0.7%, 전월비: -0.4%, 전년비: -1.9%) 12월 내구재주문 (예상(m): -2.2%, 전월비: -1.2%, 전년비: -6.4%)</p> <p>(유로존) 12월 PPI (예상 전월비: 0.5%, 전년비: -0.1%) (전월비: 1.6%, 전년비: -1.2%)</p>	<p>영국 BOE Monetary Policy Committee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비둘기파, O) 연설 Bowman 연준 이사(매파, O) 연설 Jefferson 연준 부의장(중립, O) 연설</p> <p>(한국) 12월 경상수지 (전월: +93.0억\$, 전년: +74.1억\$)</p> <p>(유로존) 12월 소매판매 (예상 전월비: -0.1%, 전년비: 1.9%) (전월비: 0.1%, 전년비: 1.2%)</p>	<p>유로존 ECB 중립금리 관련 보고서 Waller 연준 이사(비둘기파, O) 연설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Bowman 연준 이사(매파, O) 연설 Kugler 연준 이사(중립, O) 연설(2/8)</p> <p>(미국) 1월 실업률 (예상: 4.1%, 전월: 4.1%, 전년: 3.7%) 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잠정) (예상: 72.0, 전월: 73.2, 전년: 76.9)</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10	11	12	13	14
<p>(한국) 국고 3년 입찰(3 조원)</p> <p>(유로존) 2월 섀넥스 투자자신뢰지수 (전월: -17.7, 전년: -12.9)</p> <p>(중국) 1월 CPI, Core CPI(2/9) (CPI 예상): 0.4%, 전월비: 0.0%, 전년비: 0.1%) (Core 전월비: 0.2%, 전년비: 0.4%) 1월 PPI(2/9) (PPI 예상): -2.2%, 전월비: -0.1%, 전년비: -2.3%)</p>	<p>일본 휴장(건국절) 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 Hammond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매파, X) 연설</p> <p>(미국) 1월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3.0%, 전년: 3.0%) 1월 NFB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 105.1, 전년: 89.9)</p>	<p>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미국) 3년 국제 입찰 (4.33%, 간접: 61.0%, 응찰률: 2.62 배) 1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9%) (CPI 전월비: 0.4%, 전년비: 2.9%) (Core 예상(m): 0.3%, 전월비: 0.2%, 전년비: 3.2%)</p>	<p>Powell 연준 의장(비둘기파, O) 하원 증언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매파, X) 연설</p> <p>(한국) 12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8%, 전년비: 6.4%)</p> <p>(미국) 10년 국제 입찰 (4.68%, 간접: 61.4%, 응찰률: 2.53 배) 1월 PPI (예상(m): 0.2%, 전월비: 0.2%, 전년비: 3.3%)</p> <p>(유로존)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전년비: -1.9%)</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p>(한국) 국고 50년 입찰(7,000억 원) 1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2.4%, 전년비: 10.7%) (수입 전월비: 2.4%, 전년비: 7.0%) 1월 실업률 (전월: 3.7%, 전년: 3.0%)</p> <p>(미국) 30년 국제 입찰 (4.91%, 간접: 66.6%, 응찰률: 2.52 배) 1월 소매판매 (예상(m): 0.0%, 전월비: 0.4%, 전년비: 3.9%) 1월 수출입물가 (수출 예상(m): 0.3%, 전월비: 0.3%, 전년비: 1.8%) (수입 예상(m): 0.4%, 전월비: 0.1%, 전년비: 2.2%) 1월 산업생산 (예상(m): 0.2%, 전월비: 0.9%, 전년비: 0.6%)</p> <p>(유로존) 4분기 GDP(잠정) (전분기비: 0.0%, 전년비: 0.9%)</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